

##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에 따른 전역/국소 처리에서의 차이\*

Relative Effects of Cultural Orientation-LOC Types on Global/Local Processing

주미정\*\* · 이재식\*\*†

Mijung Joo\*\* · Jaesik Lee\*\*†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relative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ultural orientation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and locus of control (LOC: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beliefs) combination types on global/local processing were compared by manipulating the compound stimulus types (arrows or letters), and the stimulus-stimulus congruence.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on global/local processing of the compound stimuli, reaction time (RT) for global stimuli than for local stimuli, and that in the stimulus-stimulus congruent condition than in the stimulus-stimulus incongruent condition was faster. Second, faster RT was found in the compound arrows condition than in the compound letters. Third, individual difference in LOC, rather than that in the cultural orientations, appeared to be related to global precedence effect, when the compound letters were presented.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dividual's LOC rather than cultural orientation can increase the size of the global precedence effect, which might be involved in the stage of cognitive analysis than that of feature detection.

**Keywords** : individualism-collectivism, locus of control, stimulus-stimulus congruence, global/local processing

### 요약

동일 문화권에서의 문화성향(개인주의 vs. 집단주의)-내외 통제소재(내통제 vs. 외통제) 조합 유형에 따라 복합 자극에 대한 전역/국소 처리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자극 유형(복합도형과 복합문자)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가 조작된 실험조건에서 실험참가자들이 보인 반응시간과 오반응률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극-자극 속성이 일치하는 조건에서의 전역 처리가 가장 빨랐던 반면,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 조건에서의 국소 처리가 가장 느렸다. 둘째, 복합문자에 비해 복합도형에 대한 반응시간이 더 짧았다. 셋째, 복합도형과는 달리 복합문자의 경우 두 가지 문화성향 모두에서 내적 통제소재보다는 외적 통제소재 경향의 실험참가자들에게서 전역선행성이 관찰되었다. 이런 결과는 동일한 문화권인 경우, 문화성향보다는 내외 통제소재와 같은 성격요인에서의 개인차가 전역/국소 처리에서의 차이를 더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과, 이런 개인차 변인은 지각수준보다는 좀 더 고차의 인지수준에 관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개인주의-집단주의, 내외 통제소재,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전역/국소 처리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SSK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97).

† 교신저자 : 이재식(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E-mail : jslee100@pusan.ac.kr

TEL : 051-510-2131

FAX : 051-581-1457

## 1. 서론

특정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문화성향을 형성하고 이 문화성향에 따라 개인의 정보 처리 양상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Nisbett & Masuda, 2003). 문화에 따른 정보 처리에서의 차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다루어진 문화성향은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이분법적 분류이다(Hofstede, 1980; Triandis, 1982). 정보 처리에서의 문화 간 차이를 다루었던 연구들은 주의(Kitayama et al., 2003), 지각(Masuda & Nisbett, 2001), 범주화(Norenzayan et al., 2002), 인과추론(Choi et al., 2003)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런 연구들의 결과는 거의 일관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 중 배경보다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분석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우세하지만, 집단주의 성향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대상보다는 주어진 정보의 맥락이나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Kitayama 등(2003)은 테두리선 과제(framed-line test)를 실시하여 실험참가자들에게 자극으로 미리 주어진 배경 자극에 대한 상대적 길이(배경 테두리선의 1/3에 해당하는 길이) 또는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 길이(예를 들어, 3cm)의 막대를 다시 그리게 했을 때 개인주의가 우세하다고 여겨지는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절대적 길이 과제를, 집단주의가 우세하다고 여겨지는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상대적 길이 과제를 더 잘 수행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Masuda와 Nisbett(2001)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주어진 자극에 대한 주시 패턴이나 재인 능력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서양인은 주어진 자극의 배경보다는 대상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오래 주시할 뿐만 아니라 배경 정보보다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더 잘 재인하는 반면, 동양인은 대상보다는 배경에 더 많은 시각적 주의를 기울이고 배경의 변화를 더 잘 재인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이런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를 Navon(1977)의 말로 표현하면, 개인주의는 ‘숲보다는 나무’에 초점을 더 두는 반면, 집단주의 성향은 이와는 반대로 ‘나무보다는 숲’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개

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Navon(1977)이 언급한 전역선행성(global precedence) 효과에서의 상대적 차이를 비교한 연구도 많이 보고되었다. Navon(1977)은 전역수준과 국소수준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복합 자극(compound stimuli)을 사용하여 실험참가자들이 복합 자극의 전역 또는 국소수준(또는 세부 특징)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는지 비교하였다.<sup>1)</sup> Navon(1977)은 복합 자극에 대한 국소 처리보다 전역 처리가 더 빠르고, 특히 자극-자극 속성 일치조건보다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조건에서 이런 경향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을 ‘전역선행성’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문화성향에 따른 전역/국소 처리에서의 상대적 우세성 또는 전역선행성 효과에서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Colzato et al., 2010a; Colzato et al., 2010b; Colzato, van den Wildenberg, & Hommel, 2008; Lin & Han, 2009; McKone et al., 2010)은 일반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보다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에게서 전역선행성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은 목표 자극에 더 초점을 맞추고 방해 자극은 무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반면,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은 목표 자극뿐만 아니라 방해 자극에 대해서도 주의를 두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성향에 따른 전역선행성 효과에서의 상대적 차이를 밝힌 이런 연구는 대부분 서로 다른 문화권(특히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한 개인이나 서로 다른 인종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개인의 문화성향에 따라 전역 또는 국소 처리 양상이 달라진다면, 동일한 문화권 안에서 선발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도 동일한 반응 패턴을 보일 수 있을까? 동일 문화권에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차이가 서로 상이한 문화권에서의 차이만큼 효과를 보인다면 동일 문화권에서도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전역선행성의 차이가 관찰될 것이다.

1) 본 논문에서는 복합 자극의 전역수준과 국소수준이 일치하는 조건을 ‘자극-자극 속성 일치조건’으로, 반면 불일치하는 조건을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조건’이라 표기한다. 예를 들어, 자극-자극 속성 일치조건인 복합 자극은 작은 ‘H’로 이루어진 큰 ‘H’이고,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조건인 복합 자극은 작은 ‘H’로 이루어진 큰 ‘S(또는 이와는 반대로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복합 자극 전역수준 또는 국소수준에 대한 반응을 각각 ‘전역 처리’ 또는 ‘국소 처리’로 표기한다.

그러나 동일 문화권에서의 문화성향 차이가 문화 간 문화성향 차이만큼 크지 않다면, 문화성향에 따른 전역선행성에서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몇몇 연구는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런 연구들이 제시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문화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실험심리학적 측면이다. 먼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Triandis(1995)는 특정 문화성향에 대한 동일 문화권에서의 개인 간 차이는 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에서의 차이보다 더 작다고 주장하였다. 실험심리학적 접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Lin, Lin과 Han(2008)의 연구에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점화 과제를 사용하여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성향을 인위적으로 유도한 후, 복합 자극에 대한 전역/국소 처리 과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전역/국소수준에 대한 반응시간에서의 차이가 집단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복합 자극에 대한 전역/국소 처리 과제를 시행한 주미정, 신현정과 이재식(2012)의 연구에서도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전역 처리 시간과 국소 처리 시간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간 정보 처리와 관련된 한 가지 흥미 있는 연구 결과는 개인 성격에서의 차이가 정보 처리에서도 반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Humpherys와 Revelle(1984)은 개인의 내·외향성, 동기, 불안 등과 같은 성격 특성에 따라 정보의 전이 능력이나 단기기억 능력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진 성격요인 중 하나는 개인의 통제소재(locus of control)에서의 차이이다(Cherry, 2006; Sue & Sue, 1990; Hofstede, 1980; Mueller & Thomas, 2000). 내외 통제성이란 개인의 성격 특성 중 하나로, 행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인과적 신념이며(Rotter, 1966),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내부에 두는지 아니면 외부에 두는지를 말한다. 다시 말해, 개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자기 자신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고 지각하는지, 아니면 재수, 운, 기회 또는 자신의 통제 밖의 어떤 힘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지의 정도를 뜻한다(Strickland, 1977).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내외 통제소재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Cherry(2006)와 Hofstede(1980)의 연구에 따르면, 타이완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은 주

로 외부적 요인에 통제소재를 두는 반면,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은 주로 내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Colzato 등(2010b)은 종교 유형에 따른 개인주의(예를 들어, 개신교) 또는 집단주의(예를 들어, 천주교나 유대교) 성향이 전역/국소 처리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가능한 이유로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내외 통제소재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 개신교 신자는 자신과 관련하여 벌어진 일의 결과에 대해 그 원인을 내적인 이유(예를 들어, 자신의 책임)에서 찾는 경향이 강한테 비해, 천주교 신자는 외적인 이유(예를 들어, 운명)에서 모색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내외 통제소재에서의 이런 경향성의 차이가 개인의 정보 처리 방략에도 영향을 끼쳐 내적 통제소재 경향이 강한 사람에 비해 외적 통제소재 경향이 강한 사람은 정보를 처리할 때 좀 더 광범위한 범위로 자극 속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성격 차이에 의한 이런 정보 처리에서의 경향성은 장의존성과 관련지어 보고되기도 하였다(Dershowitz, 1971).

앞에서 전역/국소 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의 문화성향에 대한 몇몇 연구(예를 들어, 주미정 등, 2012; Lin et al., 2008) 중에는 동일 문화권의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일반적으로 밝혀진 전역/국소 처리에 대한 문화성향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고 기술한 바 있다. 그리고 개인의 문화성향에 따라 내외 통제소재도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동일 문화권인 경우 개인의 문화성향이 전역/국소 처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내외 통제소재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이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실험 설계 또는 자료 분석과 관련하여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본 실험에서 검토할 개인의 문화성향과 내외 통제소재 독립변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치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개인의 문화성향이 단일한 차원의 양극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은 상대적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주의 성향 점수에서 집단주의 성향 점수를 뺀 후 점수가 높은 집단은 개인주의 성향으로, 점수가 낮은 집단은 집단주의 성향으로 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Triandis(1995)가 언급하였듯이 개인주의와 집

단주의 성향은 단일 차원의 양 극단이 아닌 서로 독립적 차원이다. 예를 들어, 개인에 따라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이 모두 높을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한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의 내외 통제소재는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취급된다(Rotter, 1966). 즉, 외적 통제소재가 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내적 통제소재의 정도가 더 약하다(이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종합하면, 서로 독립적인 2개의 문화성향 차원 안에도 개인에 따라 내적 통제소재 경향이 외적 통제소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이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문화성향 차원과 내외 통제소재의 조합을 통해 모두 4개의 집단을 구성하였다(개인주의-내적/외적 통제소재, 집단주의-내적/외적 통제소재).

전역선행성과 관련된 중요한 또 다른 변인 중 하나는 제시되는 자극의 유의미성(meaningfulness)이다. 즉, 문자나 익숙한 대상(예를 들어, 컵이나 우산) 등은 의미 있는 자극이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거나 비기하학적인 형태(non-geometric forms)는 의미 없는 자극이다. Poirel, Pineau와 Mellet(2008)은 일반적으로 전역 처리가 국소 처리보다 더 빠르기는 하지만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의 효과는 유의미한 자극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전자는 일반적인 전역 처리 이점(global advantage)을 반영하는 반면, 후자는 전역선행성에 대한 복합 자극의 비대칭성을 반영하는 관찰자의 인지적 기제와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자극을 선택하되, 이들을 처리하는 데 요구되는 인지적 기제가 다를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복합 자극, 즉 화살표로 구성된 복합도형과 영문 대문자로 구성된 복합문자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실험에서 복합도형과 복합문자의 두 가지 유형의 복합 자극을 사용한 이유는 이 자극들이 지닌 속성(구체적으로, 복합 자극 처리에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이 속성에 따라 관찰자의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가 전역선행성에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실험참가자들이 주어진 복합 자극의 수준에 따라 좌측 또는 우측 반응키를 선택할 때 화살표로 구성되는 복합도형의 경우 좌우측 반응에 대한 정보는 자극이 지닌 세부 특징(feature)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전역 또는 국소수준으로 제시되는 화살표 자극 '→'은 화살표의 날개(즉, '>' 부분) 방향(orientation)이 우측 반응을 지시하지만 '←' 자극은 그 반대로 화살표의 날개(즉,

'<' 부분) 방향이 좌측 반응을 지시한다. 방향과 같은 원시적(primitive) 세부 특징만으로 자극 속성이 달라질 경우, 이런 자극을 구성하는 세부 특징에 대한 탐지와 통합은 비교적 신속하고 적은 인지적 노력(특히, 주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Treisman & Gelade, 1980).

이와는 대조적으로 좌측이나 우측의 의미가 날자 자체에 내포된 복합문자는 자극을 구성하는 세부 특징보다는 자극 자체가 제공하는 의미에 기초하여 반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역이나 국소 반응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R'은 'Right'의 첫 글자로 우측이라는 의미를, 'L'은 'Left'의 첫 글자로 좌측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본 실험에서는 이 두 날자의 의미를 실험참가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복합문자가 제시되면 실험참가자는 복합문자에 포함된 날자의 의미에 기초하여 반응을 선택할 것이고, 이럴 경우 복합도형에 비해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이 정보처리 단계의 지각적 처리 수준에 관여하는 요소라면, 복합도형의 경우에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에 따라 전역/국소 처리와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 사이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의 형태로 반응시간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좀 더 고차의 인지적 의미 처리수준에 관여하는 요소라면, 복합문자가 제시될 경우에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에 따라 전역/국소 처리와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반응시간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연구 질문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견한 전역선행성에서의 차별적 효과가 동일 문화권에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차이에 의해서도 관찰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즉, 전역/국소 반응에 대해 문화성향에 따른 개인차를 동일 문화권에 속한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내외 통제소재의 차이에 따라 전역/국소 반응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의 조합 유형을 기초로 실험참가자들을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조합 유형 집단에서 관찰되는 전역선행성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셋째, 복합 자극의 유형을 다르게 함으로써 복합 자극 판단(식별)

에 요구되는 처리 부담수준을 조작하여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의 조합이 지각적 처리 단계에 관여하는지, 아니면 좀 더 고차의 인지적 처리 단계에 관여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2. 실험방법

### 2.1. 실험참가자

부산지역 P대학교에서 교양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남녀 학생 50명이 학점에서 추가점을 받는 조건으로, 본 연구의 실험에 참여하였다.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개인주의-내적/외적 통제소재, 집단주의-내적/외적 통제소재)을 분류하기 위해 먼저 학부생 607명을 대상으로 문화성향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검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의 응답 경향성을 통제하기 위해 각 문항 점수에서 전체 평균 점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개인주의 점수 상위 25명을 개인주의 성향으로 분류하고, 이와는 독립적으로 집단주의 점수 상위 25명을 집단주의 성향으로 각각 분류하였다(분류 결과,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에 동시에 포함된 실험참가자는 없었다).

문화성향에 따라 각각 분류된 25명씩을 대상으로 내외 통제소재 질문지를 실시하여 문화성향 집단별로 내적 통제소재 집단과 외적 통제소재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개인주의-내적 통제소재 집단에 13명, 개인주의-외적 통제소재 집단에 12명, 집단주의-내적 통제소재 집단에 13명, 그리고 집단주의-외적 통제소재 집단에 12명이 각각 할당되었다. 50명의 실험참가자 중 남성은 18명, 여성은 32명이었다. 실험참가자의 전체 평균 연령은 20.96세( $SD = 2.57$ )이고, 이 중 남성의 평균 연령은 21.28세( $SD = 2.70$ ), 여성의 평균 연령은 20.78세( $SD = 2.52$ )이었다. 모든 실험참가자의 맨눈 또는 교정시력은 보통(0.8) 이상이었다.

### 2.2. 질문지

실험참가자의 문화성향을 분류하기 위해 32개 문항으로 구성된 Singelis 등(1995)의 문화성향 척도(The 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 : INDCOL)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내외 통제소재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1973)의

내외 통제소재 질문지를 사용하였다[이 질문지는 Rotter (1966)의 내외 통제소재 척도(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를 번역한 것이다.]. 문화성향 질문지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7점)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16개의 개인주의 성향에 대한 측정 문항과 나머지 16개의 집단주의 성향에 대한 측정 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각각 .85와 .82였다. 내외 통제소재 척도의 문항들은 내적 통제소재에 대한 항목과 외적 통제소재에 대한 항목이 한 쌍으로 구성되었고, 두 선택 항목 중 자신의 생각과 좀 더 일치하는 항목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외 통제소재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76이었다.

### 2.3. 장치 및 기구

실험 자극의 제시와 실험참가자의 반응 측정을 위해 E-Prime ver.2를 사용하였다. 자극은 삼성 싱크빅 17인치 LCD 모니터(CX171NM-PS)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모니터의 해상도는 픽셀 수를 기준으로  $1024 \times 768$ 이었다. 모니터의 재생빈도는 75Hz이었다. 실험참가자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모니터로부터 60cm 떨어진 지점에 놓인 턱받침에 턱을 고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컴퓨터 자판의 ‘z’ 키와 ‘/’ 키를 통해 반응을 입력하였다. 두 반응키 중 ‘z’ 키는 ‘L’과 ‘←’을 의미하는 ‘좌’ 레이블을, ‘/’ 키는 ‘R’과 ‘→’을 의미하는 ‘우’ 레이블을 미리 부착하였고, ‘←’과 ‘→’, ‘L’과 ‘R’의 의미에 대해서는 실험 전에 미리 실험참가자들에게 명시하였다.

### 2.4. 실험자극

Fig.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화살표 ‘→’과 ‘←’의 조합으로 구성된 4개의 복합도형(→→, →←, ←←, ←→, 전역-국소 순) 자극과 영문 대문자 ‘R’과 ‘L’의 조합으로 구성된 4개의 복합문자(RR, RL, LL, LR, 전역-국소 수준 순) 자극이 실험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실험 자극은 전역수준과 국소수준이 동일한 자극으로 구성되거나(자극-자극 속성 일치조건), 상이한 자극으로 구성되는(자극-자극 속성 불일치조건) 복합 자극이다. 제시된 복합도형의 전역수준(→ 또는 ←) 시각도는  $4.97^\circ \times 4.30^\circ$  이었고, 국소수준(→ 또는 ←) 시각도는  $0.61^\circ \times 0.4^\circ$ 이다. 복합문자를 구성하는 전역수준(L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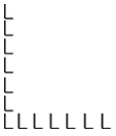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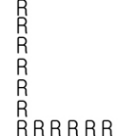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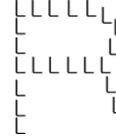
Stimulus Types	Stimulus-Stimulus(Global-Local) Congruence			
	Congruent		Incongruent	
	(a)	(b)	(c)	(d)
Compound Arrows				
Compound Letters				

Figure 1. Compound Stimuli Used in This Study. Responses Were Same for Both Global and Local Stimulus in the Conditions of (a) and (b), but Inverse Responses for Global and Local Stimulus Were Required in the Conditions of (c) and (d).

는 R)의 시각도는  $4.97^\circ \times 5.73^\circ$ 이고, 국소수준(L 또는 R)의 시각도는  $0.4^\circ \times 0.7^\circ$ 이었다. 응시점은 ‘+’ 모양으로, 전역수준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응시점의 시각도는  $4.5^\circ \times 4.5^\circ$ 이었고, 국소 처리를 의미하는 작은 응시점의 시각도는  $0.96^\circ \times 0.96^\circ$ 이었다. 자극과 응시점은 모두 검은색이고 바탕화면은 흰색이었다.

### 2.5. 실험절차

모든 실험참가자는 2개의 실험 블록(복합도형과 복합문자)에 모두 참가하였고, 복합도형과 복합문자가 제시되는 순서는 실험참가자에 따라 균형화하였다. 각 실험 블록마다 먼저 32회의 연습시행을 한 후, 80회의 본시행을 수행하였다. 각 실험 블록 안에서 4개 유형의 복합 자극은 각각 20회씩 무선으로 제시되었다. 매 실험 블록에서의 시행 전에 실험참가자들에게 해당 실험 블록에서 제시되는 4개의 복합 자극의 유형과 반응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참가자가 실험을 수행할 준비가 되면 키보드의 <space bar>를 눌러 실험을 시작하였다. 실험이 시작되면 복합 자극의 전역에 대해 반응을 할 것인지, 국소에 대한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 모양의 응시점이 모니터 중앙에 500ms 동안 제시되고, 이어 복합 자극이 모니터 중앙에 2500ms 동안 제시되었다. 실험참가자는 응시점의 크기에 따라 전역에 반응할 것인지, 국소에 반

응할 것이지를 판단하여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미리 정해진 키보드의 키를 눌러야 한다. 오반응의 경우에는 착용한 헤드폰으로 경고음을 제시하였다.

### 3.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복합도형과 복합문자 각각에 대해 자료를 분리하여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자극-자극 속성 일치 vs. 불일치), 그리고 반응조건(전역 반응 vs. 국소 반응) 변인에 대해  $4 \times 2 \times 2$  혼합 요인 설계(mixed factorial design)에 기초한 분석을 2회 실시하였다. 실험참가자의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은 피험자 간 변인이었던 반면,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와 반응조건은 피험자 내 변인이었다. 각각의 실험조건에서 관찰한 실험참가자의 반응시간과 오반응률은 반복 측정 변량 분석(repeated measures of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도 수준은 5%로 정하였다. 반응시간은 정반응의 중앙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반응이더라도 반응시간이 200ms보다 짧거나 1500ms보다 길면 오반응으로 간주하여 반응시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은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및 반응조건에 따른 자극 유형별(복합도형과 복합문자) 평균 반응시간 및 오반응률을 표기한 것이다.

Table 1. Cultural Orientation-Locus of Control(LOC) and Global/Local Processing: Reaction Time(RT) and Error Rates(ERR) When Stimulus Types, Stimulus-Stimulus Congruence Were Varied. Values in Parenthesis Are Standard Deviation.

Stimulus Types	Individualism/Collectivism-Internal/External LOC	N	Stimulus-Stimulus Congruence	Global Processing		Local Processing	
				RT(ms) (SD)	ERR(%) (SD)	RT(ms) (SD)	ERR(%) (SD)
Compound Figures	Individualism-Internal LOC	13	Congruent	543.73 (90.83)	4.23 (4.00)	617.92 (127.30)	3.46 (3.76)
			Incongruent	624.58 (119.94)	13.46 (10.28)	681.35 (94.33)	12.69 (11.29)
	Individualism-External LOC	12	Congruent	631.58 (167.15)	7.08 (6.56)	653.38 (151.36)	5.42 (3.34)
			Incongruent	669.58 (188.24)	10.83 (9.49)	766.83 (159.24)	11.67 (7.18)
	Collectivism-Internal LOC	13	Congruent	602.50 (124.59)	6.15 (5.83)	626.58 (118.00)	5.00 (8.66)
			Incongruent	672.00 (154.30)	14.23 (11.15)	699.38 (168.66)	8.08 (6.30)
	Collectivism-External LOC	12	Congruent	589.42 (71.94)	2.50 (3.37)	617.54 (86.39)	2.50 (3.37)
			Incongruent	599.25 (63.00)	7.08 (5.42)	689.04 (64.21)	2.50 (3.37)
Compound Letters	Individualism-Internal LOC	13	Congruent	444.19 (57.00)	1.92 (4.35)	538.23 (71.94)	1.15 (2.49)
			Incongruent	508.04 (113.70)	4.61 (4.77)	626.54 (99.83)	8.08 (8.30)
	Individualism-External LOC	12	Congruent	503.67 (129.34)	1.67 (3.26)	620.96 (153.41)	.42 (1.44)
			Incongruent	558.42 (169.97)	4.17 (5.15)	711.33 (143.91)	7.50 (6.22)
	Collectivism-Internal LOC	13	Congruent	483.42 (130.16)	.38 (1.39)	571.38 (135.79)	2.69 (5.63)
			Incongruent	549.92 (154.57)	3.85 (4.63)	667.04 (114.80)	8.08 (9.47)
	Collectivism-External LOC	12	Congruent	503.83 (93.47)	.00 (.00)	598.63 (79.98)	1.25 (3.11)
			Incongruent	565.83 (129.80)	2.92 (3.34)	706.63 (119.59)	3.75 (7.42)

### 3.1. 복합도형에 대한 분석 결과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에 따른 복합도형의 반응시간 변량 분석 결과, 복합도형의 전역에 대한 반응시간이 복합도형의 국소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더 빨랐다[ $F(1, 46) = 195.45, MSe = 3402.93, p < .001, \eta^2 = .81$ ]. 그리고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조건이 자극-

자극 속성 일치조건보다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더 느렸다[ $F(1, 46) = 98.00, MSe = 3153.48, p < .001, \eta^2 = .68$ ]. 또한 전역/국소 반응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였는데[ $F(1, 46) = 7.12, MSe = 2005.17, p < .05, \eta^2 = .13$ ], 이것은 자극-자극 속성 일치조건에서의 전역 반응과 국소 반응의 차이보다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조건에서의 전역 반응과 국

소 반응의 차이가 더 컸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Navon(197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조건에서의 차이[ $F(3, 46) = 1.00, MSe = 51047.64, p > .05, \eta^2 = .06$ ]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실험의 주요 관심인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과 전역/국소 반응조건 또는 자극-자극 속성의 일치/불일치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과 전역/국소 반응조건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F(3, 46) = .78, MSe = 3402.93, p > .05, \eta^2 = .05$ ]와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F(3, 46) = .12, MSe = 3153.48, p > .05, \eta^2 = .01$ ]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과 전역/국소 반응, 그리고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 사이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F(3, 46) = .14, MSe = 2005.17, p > .05, \eta^2 = .01$ ]. 이런 결과는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보다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이 더 큰 전역-국소 처리 차이를 보인다는 것(즉, 국소 반응에 비해 전역 반응이 더 빠른 양상이 개인주의 성향보다는 집단주의 성향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보고한 기존의 연구 결과(예를 들어, McKone et al., 2010)와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복합도형의 전역 처리와 국소 처리에 대한 오반응률 차이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 전역/국소 처리의 주 효과[ $F(1, 46) = 7.07, MSe = 19.81, p < .05, \eta^2 = .13$ ]와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조건 주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F(1, 46) = 36.30, MSe = 24.06, p < .001, \eta^2 = .44$ ]. 이런 결과는 복합도형의 국소 처리에 대한 오반응률이 전역 처리에 대한 오반응률보다 더 크고,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조건이 자극-자극 일치조건보다 오반응률이 유의하게 더 컸기 때문이다. 이외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 3.2. 복합문자에 대한 분석 결과

복합문자의 반응시간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 앞에서 기술한 복합도형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복합문자의 전역 처리 시간이 국소 처리 시간보다 더 빨랐고[ $F(1, 46) = 47.67, MSe = 2877.87, p < .001, \eta^2 = .51$ ],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조건이 자극-자극 속성 일

치조건보다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더 느렸다[ $F(1, 46) = 85.03, MSe = 2474.31, p < .001, \eta^2 = .65$ ]. 그리고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과 전역/국소 처리조건 사이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시사하듯, 자극-자극 속성 일치조건에서의 전역 처리와 국소 처리 사이의 반응시간 차이보다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조건에서의 전역 처리와 국소 처리 사이의 반응시간 차이가 더 컸다[ $F(1, 46) = 7.22, MSe = 1634.85, p < .05, \eta^2 = .14$ ].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조건 사이의 반응시간 차이[ $F(3, 46) = .70, MSe = 58435.66, p > .05, \eta^2 = .04$ ]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과 전역/국소 반응조건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F(3, 46) = 1.46, MSe = 2877.87, p > .05, \eta^2 = .09$ ], 그리고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과 자극-자극 속성의 일치/불일치조건 간의 상호작용 효과[ $F(3, 46) = 1.30, MSe = 2474.31, p > .05, \eta^2 = .08$ ]도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과 전역/국소 처리 및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 사이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F(3, 46) = 3.84, MSe = 1634.85, p < .01, \eta^2 = .20$ ]는 유의하였다. 즉,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에 따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에 따른 전역 처리와 국소 처리의 반응시간 양상이 달랐다. 이런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네 가지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별로 전역/국소 처리조건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의 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주의-내적 통제소재의 경우[Fig. 2 (a)], 복합문자의 전역수준에 대한 반응시간이 국소수준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더 빨랐고[ $F(1, 12) = 17.03, MSe = 3274.13, p < .01, \eta^2 = .59$ ],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조건이 자극-자극 속성 일치조건보다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더 느렸다[ $F(1, 12) = 27.76, MSe = 2436.36, p < .001, \eta^2 = .70$ ]. 전역/국소 처리와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12) = .31, MSe = 3234.73, p > .05, \eta^2 = .03$ ].

개인주의-외적 통제소재조건인 경우[Fig. 2 (b)], 복합문자의 전역수준에 대한 반응시간이 국소수준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더 빨랐고[ $F(1, 11) = 9.13, MSe = 4654.72, p < .05, \eta^2 = .45$ ],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조건인 경우가 자극-자극 속성 일치조건인 경우보다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더 느렸으며[ $F(1, 11) = 32.46, M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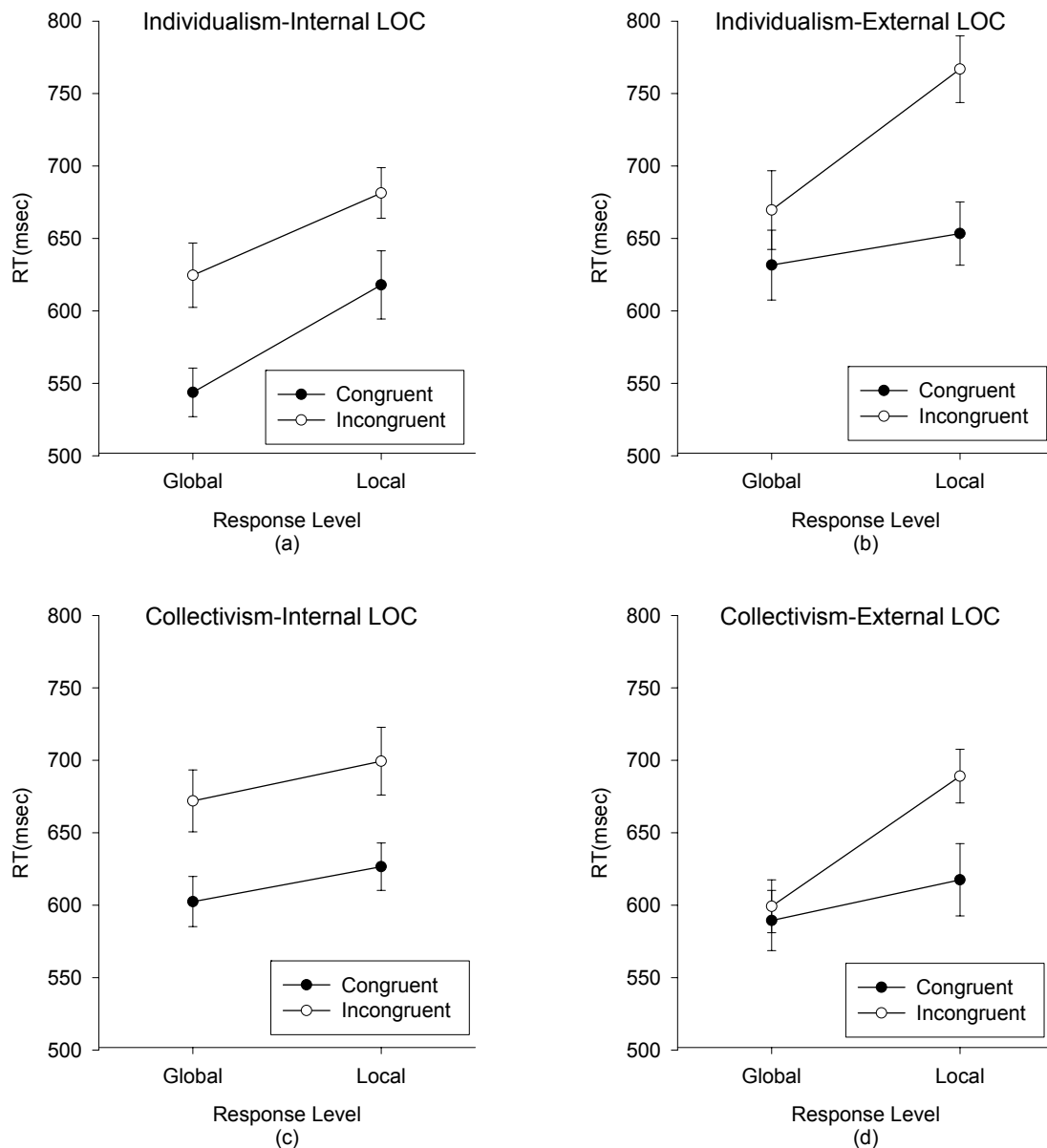


Figure 2. Global/Local Reaction Times for Compound Letters of Cultural Orientation-LOC Groups As a Function of Stimulus-Stimulus Congruence Condition. Error Bars Are Standard Error.

2120.12,  $p < .001$ ,  $\eta^2 = .75$ ], 전역/국소 처리와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 $F(1, 11) = 18.54$ ,  $MSe = 921.21$ ,  $p < .05$ ,  $\eta^2 = .63$ ]. 이런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자극-자극 속성 일치조건에서 전역 처리와 국소 처리의 반응시간 차이보다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조건에서 전역 처리와 국소 처리의 반응시간 차이가 더 컸기 때문이다.

집단주의-내적 통제소재조건의 경우[Fig. 2 (c)], 개인주의-내적 통제소재 조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복합 문자의 전역수준에 대한 반응시간이 국소수준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더 빨랐고 [ $F(1, 12) = 6.45$ ,  $MSe = 1333.60$ ,  $p < .05$ ,  $\eta^2 = .35$ ],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조건이 경우가 자극-자극 속성 일치조건인 경우보다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더 느렸다 [ $F(1, 12) = 18.96$ ,  $MSe = 3471.26$ ,  $p < .01$ ,  $\eta^2 = .61$ ]. 마찬가지로 전역/국소 처리와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 $F(1, 12) = .03$ ,  $MSe = 1405.07$ ,  $p > .05$ ,  $\eta^2 = .00$ ].

반면, 집단주의-외적 통제소재 조건의 경우[Fig. 2 (d)]는 개인주의-외적 통제소재 조건과 동일하게 복합

문자의 전역수준에 대한 반응시간이 국소수준에 대한 반응시간보다 더 빨랐고 [ $F(1, 11) = 17.73$ ,  $MSe = 2353.38$ ,  $p < .01$ ,  $\eta^2 = .62$ ],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조건의 경우가 자극-자극 속성 일치조건의 경우보다 반응시간이 유의하게 더 느렸으며 [ $F(1, 11) = 11.13$ ,  $MSe = 1782.33$ ,  $p < .01$ ,  $\eta^2 = .50$ ], 자극-자극 속성 일치조건의 전역 처리와 국소 처리의 반응시간 차이보다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조건의 전역 처리와 국소 처리의 반응시간 차이가 더 컸다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과 전역/국소 처리 사이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 :  $F(1, 11) = 13.36$ ,  $MSe = 853.36$ ,  $p < .01$ ,  $\eta^2 = .55$ ].

복합문자의 전역 처리와 국소 처리에 대한 오반응률 차이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 전역/국소 처리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 $F(1, 46) = 5.94$ ,  $MSe = 26.71$ ,  $p < .05$ ,  $\eta^2 = .11$ ] 복합도형의 국소 처리 오반응률이 전역 처리 오반응률보다 상대적으로 더 컸다. 그리고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조건이 자극-자극 일치조건보다 오반응률이 더 컸다 [ $F(1, 46) = 35.49$ ,  $MSe = 42.93$ ,  $p < .001$ ,  $\eta^2 = .44$ ].

오반응률은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조건 사이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F(3, 46) = 2.89$ ,  $MSe = 100.54$ ,  $p < .05$ ,  $\eta^2 = .16$ ]. 이런 주 효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Bonferroni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 $p = .098$ ),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 중 집단주의-외적 통제소재 조합 유형이 개인주의-외적 통제소재 조합 유형에 비해 오반응률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은 내적 통제소재와, 집단주의 성향은 외적 통제소재와 상관이 높다는 기존 연구(Cherry, 2006; Hofstede, 1980)에 기초하여 이 결과를 해석하면, 개인의 문화성향과 내외 통제소재가 합치하는 경우 반응의 정확성에서 향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외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 4. 논의

본 연구는 동일 문화권에 속한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내외 통제소재의 조합에 따른 개인차가 전역/국소 처리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처리 부담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자극 유형(복합도형과 복합문자)

각각에 대해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와 전역/국소 처리조건을 체계적으로 조작한 후, 네 가지 유형의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집단의 관찰자들이 보인 반응시간과 오반응률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역선행성에 대한 연구들의 일반적 결과와 마찬가지로 복합도형과 복합문자 모두에서 복합 자극의 국소수준보다 전역수준에 대한 반응이, 그리고 자극-자극 속성 불일치조건보다 일치 조건에서의 반응이 더 빨랐다. 특히 자극-자극 속성이 일치하는 조건에서의 전역 처리 반응시간이 가장 빨랐던 반면, 자극-자극 속성이 불일치하는 조건에서의 국소 처리 반응시간이 가장 느렸다. 둘째, 복합문자보다 복합도형에 대한 반응시간이 더 짧았는데, 이것은 실험참가자들이 복합문자 자극이 내포하는 의미에 기초하여 반응하였기 때문에 복합도형보다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복합도형에 대해서는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에 따른 전역/국소 처리에서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반면, 인지적 부담 수준이 복합도형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복합문자의 경우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과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 및 전역/국소 반응조건 사이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런 유의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이유는 내적 통제소재, 즉 개인주의-내적 통제소재와 집단주의-내적 통제소재[Fig. 2 (a), (c)]는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에 상관없이 반응시간에서 전역 처리와 국소 처리 반응의 양상이 동일한데 반해, 외적 통제소재, 즉 개인주의-외적 통제소재와 집단주의-외적 통제소재[Fig. 2 (b), (d)]는 자극-자극 속성이 일치하는 경우보다 자극-자극 속성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전역 처리와 국소 처리에서 반응시간의 차이가 더 컸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전역/국소 처리의 차이를 살핀 기존의 연구에서 집단주의 성향이 개인주의 성향보다 전역선행성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인 것과는 달리, 본 연구의 집단주의-내적 통제소재와 개인주의-내적 통제소재에서는 이런 차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런 경향의 전역선행성은 집단주의-외적 통제소재와 개인주의-외적 통제소재에서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관찰하지 않은 결과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관찰자의 문화성향에 따른 전역선행성의 차이만 비교했던 반면, 본 연

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성향과 함께 일종의 성격요인이 라 할 수 있는 내외 통제소재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 개인의 문화성향보다는 내외 통제소재가 전역선행성에서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가 동일 문화권이라는 점과,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문화권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변화하는 추세가 강하다는 점(류승아, 2009; 한규석과 신수진, 1999)을 모두 고려하면 이런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전역선행성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문화성향의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지만, 문화성향 이외의 또 다른 개인차 변인(예를 들어, 내외 통제소재와 같은 개인의 성격요인)이 전역선행성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 조합 유형, 자극-자극 속성 일치 여부 조건 및 전역/국소 처리조건 사이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복합문자조건에서만 관찰된 것은 전역선행성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성향-내외 통제소재에서의 개인차가 지각수준보다는 좀 더 고차의 인지적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전역/국소 반응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서로 다른 문화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동일 문화권에서의 문화성향의 차이에 따른 전역/국소 처리의 차이를 살펴보고,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함께 내외 통제소재에서의 개인차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문화성향에서의 개인차 자체보다는 그러한 문화성향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개인차가 사람들의 정보 처리에서의 차이를 더 민감하게 변별할 수 있다는 결과를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차를 문화성향 자체의 관점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문화성향과 관련 있는, 또는 문화성향에서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예를 들어, 성격, 동기, 자기효능감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Cha, J., Kong, J., & Kim, C. (1973). Making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내외 통제소재 작성). *Korean Behavioral Science Laboratory Research Note*, 2, 263-271.
- Cherry, J. (2006). The impact of normative influence and locus of control on ethical judgements and intentions: A cross-cultural comparis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68, 113-132.
- Choi, I., Dalal, R., Kim-Prieto, C., & Park, H. (2003). Culture and judgement of causal relev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46-59.
- Colzato, L. S., Hommel, B., van den Wildenberg, W. P. M., & Hsieh, S. (2010a). Buddha as an eye opener: A link between prosocial attitude and attentional control. *Frontiers in Psychology*, 1, 156.
- Colzato, L. S., van Beest, I., van den Wildenberg, W. P. M., Scorolli, C., Dorchin, S., Meiran, N. et al. (2010b). God: Do I have your attention? *Cognition*, 117, 87-94.
- Colzato, L. S., van den Wildenberg, W., & Hommel, B. (2008). Losing the big picture: How religion may control visual attention. *PLoS ONE*, 3, 1-3.
- Dershowitz, Z. (1971). Jewish subcultural patterns and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6, 223-231.
- Han, G., & Shin, S. (1999). A cultural profile of Korean society: From vertical collectivism to horizontal individualism(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3, 293-310.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umpherys, M. S., & Revelle, W. (1984). Personality, motivation, and performance: A the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differences and information processing. *Psychological Review*, 91, 153-184.
- Joo, M., Shin, H., & Lee, J. (2012). Differential effects of cultural dispositions on global precedence (문화성향에 따른 전역선행성 효과에서의 차이). *Th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24, 41-63.
- Kitayama, S., Duffy, S., Kawamura, T., & Larsen, T. J. (2003). Perceiving an object and its context in different cultures: A cultural look at the New Look. *Psychological Sciences*, 14, 201-206.
- Lin, Z. & Han, S. (2009). Self-construal priming modulates

- the scope of visual atten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62, 802-813.
- Lin, Z., Lin, Y., & Han, S. (2008). Self-construal priming modulates visual activity underlying global/local perception. *Biological Psychology*, 77, 93-97.
- Masuda, T., & Nisbett, R. E. (2001). Attending holistically vs. analytically: Comparing the context sensitivity of Japanese and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922-934.
- McKone, E., Davies, A., Fernando, D., Aalders, R., Leung, H., Wickramariyaratne, T., & Platow, M. (2010). Asia has the global advantage: Race and visual attention. *Vision Research*, 50, 1540-1549.
- Mueller, S. L., & Thomas, A. S. (2000). Culture and entrepreneurial potential: A nine country study of locus of control and innovative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 51-75.
- Navon, D. (1977). Forest before trees: The precedence of global features in visual perception. *Cognitive Psychology*, 9, 353-383.
- Nisbett, R. E., & Masuda, T. (2003). Culture point of view. *PNAS*, 100, 11163-11170.
- Norenzayan, A., Smith, E. E., Kim, B. J., & Nisbett, R. E. (2002). Cultural preferences for formal versus intuitive reasoning. *Cognitive Science*, 26, 653-684.
- Poirel, N., Pineau, A., & Mellet, E. (2008). "What does the nature of the stimuli tell us about the global precedence effect?". *Acta Psychologica*, 127, 1-11.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28.
- Ryu, S. (2009). Attitudes toward the employability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the U. S. (정신장애인의 경쟁고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 1-25.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trickland, B. R. (1977). Internal-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In T. Blass (Ed.), *Personality and social behaviors*. Hillsdale, NJ: Erlbaum.
- Sue, D. W., & Sue, D. (1990). *Counseling the culturally different: Theory and practice* (2nd ed.). New York: John Wiley.
- Treisman, A. M., & Gelade, G. (1980). A feature-integration theory of attention. *Cognitive Psychology*, 12, 97-136.
- Triandis, H. C. (1982). Review of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Human Organization*, 41, 86-90.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West view Press.
- 원고접수 : 2012.02.02  
수정접수 : 2012.03.01  
게재확정 : 2012.03.14